

1950년대 말 멜로드라마에 묘사된 근대건축공간에 대한 연구

문근중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조교수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Space Represented in Melodrama Films of the Late 1950s

Guen-Jong M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College of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말의 한국 멜로드라마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대적, 서구적 이미지로 드러난 건축공간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영화가 당대의 주거문화, 건축공간, 인간행위 등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고찰을 위해 신상옥 감독의 50년대 멜로드라마 5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각 영상자료의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특성, 대사, 관련 작품해설이나 평론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다. 멜로드라마 속에서 근대건축공간은 크게 2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전후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전통적 주거건축과는 대비되는 근대적 건축공간들이 조명되었는데, 이는 서구적 주거방식과 부유층의 생활상에 대한 관객들의 동경과 호기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둘째, 주거공간뿐 아니라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 다양한 비주거 건축공간들이 비중 있게 묘사되었는데, 주로 공간의 내부를 비추면서 서구적 이미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조명되었다.

주제어 : 1950년대, 멜로드라마, 근대건축, 공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n Architecture Space' represented in Korean melodrama films of the late 1950s. It is assumed that popular films reflect the residential culture, architectural spaces and human activities of those days. For the analysis, a pool of 5 Korean melodramas of the late 1950s was constructed. In these melodramas, the modern architectural spaces were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1) The modern-style residential spaces were emphasized to reflect the interest and longing of the public for western lifestyle. 2) The western non-residential spaces such as work spaces and commercial spaces were emphasized, especially its interior design of western image.

Key Words : 1950s, Melodrama, Modern Architecture, Space,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회

문화적 혼란과 극도의 빈곤이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의 움직임이 활발하던 당시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미국화, 근대화되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 하면서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미국 영화 등 서구 대중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6S1A5A8020392)

*Corresponding Author : Guen-Jong Moon(gjmoon@kmu.ac.kr)

Received February 1, 2019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March 28,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화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고[1], 결국 서구지향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게 된 것이다.

한편 1950년대 우리영화의 주류적 경향은 단연 멜로드라마였는데[2], 이를 반영하듯 1956년부터 멜로드라마는 영화장르용어로 저널리즘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당시 멜로드라마는 크게 '옛 것'(주요 신파조)과 '새로운 것'(현대적 멜로드라마)으로 대별되며 새로운 것이 옛 것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중 '현대적' 멜로드라마 속에 드러난 인물들의 행위와 미장센 등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문화와 삶의 모습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직후 삶의 모습들 중 건축적 공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되었으며 주요 분석대상으로는 건축문화와 관련된 문헌 등이 아닌 당시의 우리 대중영화들이 선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말(특히 1958~59)의 우리 멜로드라마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대적, 서구적 이미지의 건축공간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산물인 대중영화가 작가나 감독의 연출의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거문화, 건축공간, 인간행위 등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3]는 점, 그리고 당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주류 장르로 자리매김한 멜로드라마가 전후 한국 사회의 유/무형적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했을 것[4]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멜로드라마에 묘사되는 시각적, 공간적 장면들과 그에 담긴 의미들을 해석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영상자료를 매개로 한 건축학적, 인문학적으로 고찰의 속성을 지닌다. 동시에 영화학과 건축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성격의 연구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영화의 문화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멜로드라마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1958년의 일인데 이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6.25 이후임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1957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신문기사에선 '멜로드라마'라는 단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했는데, 이는 멜로드라마가 비로소 영화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6].

당시 이 장르에서 주목을 받은 영화감독은 대표적으

로 2명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 홍성기 감독은 멜로드라마 전문 감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애인>(1956)과 <실락원의 별>(1957)이 흥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의 영화는 전형적인 현대 멜로드라마로 평가받았다. 이어 <별아내 가슴에>(1958)와 <산 넘어 바다 건너>(1958), 그리고 <청춘극장>(1959)까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한편 1958년 신상옥 감독은 <지옥화>와 <어느 여대생의 고백>을 내놓으며 또 한 명의 멜로드라마 흥행 감독으로 등극하였는데 이를 시작으로 1959년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 <동심초>, 그리고 <자매의 화원>으로 이어지는 연타 흥행기록을 쌓아갔다. 신상옥 감독의 작품은 '동류의 영화로선 최상위에 놓일 가작'('조선일보' 1959년 10월 2일자 4면) 등으로 호평 받았는데 홍성기 감독의 영화가 1958년부터 '평범하다'는 수식어를 달기 시작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었다. 여기에서 신상옥 감독의 멜로드라마가 가장 참신하고 세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영화들에 비교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음이 드러난다[7].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신상옥 감독의 작품들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관객들의 호응을 더 많이 받고 평단의 호평을 더 많이 차지한 작품이 그렇지 않은 작품에 비해 당시의 사회상과 주거문화를 더욱 잘 반영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홍성기 감독의 영화들에 대한 영상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한계도 반영된 것이다.

1950년대 신상옥 감독의 작품 중 영상이 현존하는 것은 총 9편뿐이다[8]. 이 9편의 영상작품들을 1차적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9편의 분석대상을 통하여 각 영화의 등장인물, 대사, 스토리, 장면들과 또한 관련된 문헌들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시각적, 건축적으로는 영화의 각 장면이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작품 속에 설정된 인물관련 정보와 건축 공간 및 서구화/근대화에 대한 표현, 더 나아가 영화적 메시지까지를 연계하며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작품 관련 신문 기사나 평론 등은 해당 작품에 대한 평판과 관객들의 반응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시 해당 영화의 시대적·사회적 의미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멜로드라마 속 '근대건축공간'을 다음의 2장, 3장에서 살펴보는 방법으로 아래의 방식 3가지를 혼합, 활용하고자 한다. 1)영상에서의 건축공간 관련 장면 도출, 2)영화 속 내레이션이나 배우의 대사 분석, 그리고 3)당

시의 기사나 평단의 반응 또는 최근 출시된 영상작품 DVD에 수록된 작품해설이나 평론 등 텍스트 자료 참조이다.

2. 신상옥 멜로드라마 기초 분석

영화 속에 드러난 근대적 건축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화의 구성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여기 2장에서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인물과 공간, 장소를 먼저 알아본다. 즉, 성별이나 직업, 경제적 계층 등 등장인물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인물들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건축물들이 등장하는지 등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연구의 1차적 분석대상 9편을 분석한 결과, 50년대 말 당시의 건축공간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 4편이 드러났다. 먼저 <꿈>(1955)은 신라의 화랑이 등장하는 사극이며 <무영탑>(1957) 또한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멜로드라마이다. 또 <젊은 그들>(1955)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고 <독립협회와 청년 리승만>(1959)은 한말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극영화이면서 동시에 전기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4작품을 주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옥화>(1958)부터 <자매의 화원>(1959)까지의 총 5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기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Shin Sang-ok's 5 Melodramas

Year	Film Title	Time
1958	The Flower in Hell	86min
1958	A College Woman's Confession	122min
1959	It's Not Her Sin	104min
1959	Dongsimcho	126min
1959	A Sister's Garden	108min

먼저 <지옥화>(1958)는 미군 기지촌을 배경으로 파격적인 상황설정과 스펙터클이 연출된, 웨스턴과 갱스터가 혼성된 멜로드라마이다.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들과 미군부대의 물건을 훔쳐 암시장에 내다 파는 갱단이 등장하며 영화의 초반부에는 서울역사 앞 일대와 미군부대 앞 시장통 풍경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길게 보여준다. 행위의 장소로서는 서울역광장, 미군기지, 기지촌, 당구장, 양공주촌(집합주택), 여주인공 쏘냐의 방, 폐허, 댄스파티

장, 가건물, 열차 등이 등장한다.

둘째로 <어느 여대생의 고백>(1958)은 관습적인 여성 수난담과 스펙터클적인 서스펜스가 절묘하게 결합된 멜로드라마로, 여주인공 소영의 평범한 한옥 하숙집과 국회의원 최립의 서구적 3층 저택 실내외 공간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가구점과 다방, 빵집, 서울시 경찰국, 대학병원, 법률사무소, 서대문형무소 등이 등장한다.

셋째 1959년 1월에 개봉한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는 '모성'이라는 전통적인 화두를 그 중심에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펙터클 문법을 차용한 멜로드라마이다[9]. 여주인공 영숙의 한옥과 전 주구공사 백상호의 3층짜리 모던 저택이 대비되는 공간으로 나타나며 대검찰청(현 서울시 탐미수관), 병원, 공원, 산부인과, 고궁, 찻집, 빵 등 다양한 공간들이 조명되었다.

넷째 <동심초>(1959)는 전쟁미망인인 이여사의 사랑과 번민을 다룬 영화로,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여사의 혜화동 한옥에 대비되는 주거공간으로 이사장의 현대식 저택이 등장한다. 또한 타 작품들에 비해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방, 약방, 출판사 사무실, 서울역, 중국요리집, 시골 초가집들의 풍경 등을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째 작품인 <자매의 화원>(1959)은 주인공 자매를 포함하는 4명의 젊은이와 1명의 중년(방사장)이 만들어내는 애정과 갈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우리나라 멜로드라마로서는 최고 수준'으로 극찬 받았던 영화였다. 자매의 거처는 계동 한옥으로 설정되어있고 의사 흥군 또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한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양화를 그리는 젊은 화가 김동수가 사는 곳은 근대주택이며 방사장의 집 또한 근대적 분위기의 별채 양옥이다.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찻집, 빵집 등이 공간적 장치로 등장하지만 <자매의 화원>에서는 유난히 서구적 분위기의 공간들이 강조되었는데, 명희의 패션쇼 워킹 장면, 카테일 바, 현대식 가구점, 명동 양장점, 독특한 인테리어의 방사장 사무실, 그리고 청운장 요정의 인테리어 등이다.

이상에서 보듯, 신상옥 감독의 멜로드라마 다섯 편에 등장하는 건축적/공간적 요소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50년대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서양식 저택이나 문화주택 등을 비추면서 기와집 등 전통적 한옥과 대조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주거공간 이외에도 댄스파티장, 카테일 바, 양장점 등 다양한 종류의 근대적, 서구적 공간들의 모습을 스크린

에 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초적 분석과 함께 각 멜로드라마의 주제와 줄거리,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 평론 등 5편의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50년대 말 신상옥 멜로드라마 속의 근대건축공간은 크게 2가지의 특징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고 정리되었다.

첫째, 근대적/서구적인 주거방식과 부유층의 삶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 또는 동경이 서양식 저택, 문화주택 등의 근대 주거건축 내/외부 공간을 비추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주거공간뿐 아니라 상업공간, 업무공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 내부를 비추면서 서구적 이미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극 조명되었는데, 이 또한 대중들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였다.

3. 멜로드라마에 묘사된 근대건축공간

3.1 서구적 생활방식과 근대주거공간

50년대 말 멜로드라마 영화들은 빈곤과 사회적 혼돈 속에서도 전통적인 주거건축과는 다른 근대적 건축공간들을 조명하였는데[10], 이는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었다. 먼저 <어느 여대생의 고백>(1958)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범대를 다니고 있는 젊은 여주인공 소영이 등장한다. 학비를 구하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는 소영의 거처는 한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하숙집(한옥)이다. Fig. 1의 상단 장면에서 보듯 골목길 하숙집의 전경과 소영의 방 내부는 평범한 한옥의 모습 그대로이다.



Fig. 1. Soyoung's Boarding House(above) and Choi Rim's Residence(below) <A College Woman's Confession>(1958)

마지막 기회라 여겼던 취직 면접에서도 실패한 소영은 국회의원 최립의 가짜 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최립의 주택은 Fig. 1의 하단 이미지와 같다. 서구식 분위기의 3층 저택으로 성공한 부유층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의 거실 장면에서 보듯 벽난로와 라디에이터가 있고 화려한 문양의 소파와 커튼으로 장식되어 있다. 저택에는 비서와 식모가 있으며 외부의 넓은 마당에 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또한 Fig. 2의 왼쪽에서와 같이 저택 내의 식당 장면은 식탁, 의자, 그릇, 기타 인테리어 등이 고급스럽다 못해 호화로우며 그 자체이며 이는 오른쪽의 소영 방 내부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소영의 침대, 화장대 등으로 이루어진 공간 분위기는 소영이 이 저택에 들어오기 전에 거주하던 하숙집의 모습(Fig. 1의 상단)과 상당한 차이의 대조를 이룬다.



Fig. 2. Interior Views of the Dining Room and Soyoung's Bedroom <A College Woman's Confession>(1958)

<어느 여대생의 고백>에서 나타난 주거공간의 대조는 이어 개봉된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1959)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두 여주인공이 스토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영숙과 그녀의 언니 성희이다. 둘은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선후배 사이이며 성희는 전(前) 주공공사(駐歐公使)의 부인이다. 한 아이를 두고 낳은 엄마(영숙)와 기른 엄마(성희)의 갈등이 주된 스토리 전개인데, 여기서 영숙의 거처가 일반 기와집인데 비해 성희의 집은 커다란 대문이 딸린 3층짜리 근대주택으로 묘사된다.

아래 Fig. 3에서 보듯 서구 양식의 외관을 하고 있으며 카펫이 깔린 거실에는 주인과 손님 모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등 입식 생활의 모습을 보인다. 유모와 가정부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의 소파와 그랜드 피아노, 커튼으로 장식된 넓은 응접실에서는 서울 시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Fig. 3. Exterior view and Interior view of Seonghee's Residence <It's Not Her Sin>(1959)

멜로드라마 <동심초>(1959)는 30대 후반의 전쟁미망인인 이여사와 전도유망한 총각 김상규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김상규의 약혼녀로 옥주가 등장한다. 옥주의 주택은 넓은 마당에 정원과 벤치, 연못까지 조성되어 있으며 화려한 커튼으로 꾸며진 옥주의 방과 위스키를 즐기는 응접실 장면은 부유층의 생활방식 그대로이며 또한 이여사의 거처인 혜화동 한옥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상옥 감독의 멜로드라마에서는 한옥과 근대주택이 마치 옛 것과 새로운 것, 또는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을 상징하며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대조는 <자매의 화원>(1959)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자매의 화원>에 등장하는 주인공 자매는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해온 조신한 언니 정희와 욕심 많고 적극적인 동생 명희이다. 자매의 주거공간은 계동에 위치한 한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명희의 상대역인 젊은 화가 김동수의 거처는 아래 Fig. 4에서 보듯 네모반듯한 근대주택이다.



Fig. 4. Dongsu's Modern House <A Sister's Garden> (1959)

서양화가 전공인 김동수를 대비하듯 실내공간에는 많은 그림들이 걸려있으며 동수와 명희는 양주를 마시면서 명희의 양장점 개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정희를 두고는 젊은 의사 홍군과 중년의 방사장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래 Fig. 5의 장면에서 보듯 홍군과 그의 어머니가 신촌의 누추한 셋집에서 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장의 집은 현대적 분위기의 별채 양옥으로 등장한다.



Fig. 5. Contrast of the Two Houses <A Sister's Garden> (1959)

이렇듯 신상옥 감독의 멜로드라마에서는 현대적, 서구적 이미지의 주거공간 내/외부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주거공간인 한옥과의 대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서구적 생활방식과 부유층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 동경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3.2 서구문화와 비주거공간

서구적 생활방식이 담긴 근대주거공간이 50년대 멜로드라마 속에서 조명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주거공간뿐 아니라 상업/업무 공간 등 다양한 종류의 비주거 건축 공간 또한 스크린 속에서 비중 있게 표출되었다[11]. 비주거 공간은 주로 내부를 비추면서 서구적 이미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극 조명되었는데, 이 또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감안한 결과였다.

먼저 <어느 여대생의 고백>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소영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병실이 대비를 이룬다. Fig. 6의 왼쪽과 같이 일반 병실에 입원한 소영을 찾아 국회의원 최립이 오게 되는데 소영을 자신의 친딸이라 여긴 최립이 소영을 특실로 옮긴다. 특실의 내부 모습은 Fig. 6의 오른쪽과 같은데, 유리로 구성된 두 벽면 덕분에 햇살 가득한, 그리고 전망 좋은 장소로 연출되어있다.



Fig. 6. Interior Views of the General Ward and Private Ward <A College Woman's Confession> (1958)

멜로드라마 영화를 통한 '서구문화 보여주기'는 <자매의 화원>에서 가장 강조되었다. 먼저 양장점을 차리게

되는 명희의 공간인데, Fig. 7의 상단 장면이다. 왼쪽은 현대식 패션쇼에 명희가 직접 참여하여 워킹을 선보이는 장면이며 오른쪽은 개업한 이후의 양장점 내부 모습이다. 특히 양장점 내의 벽 장식장 등 가구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실용적이라 하기보다는 독특하고 세련된 형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은 명희와 김동수가 양장 차림으로 현대식 가구점을 방문하는 장면(Fig. 7의 중앙 오른쪽), 그리고 방사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장면과 역시 방사장 소유의 청운장 요정 내부 장면으로 이어진다.(Fig. 7의 하단)



Fig. 7. 6-Scenes from <A Sister's Garden>(1959)

서구식 문화, 특히 미국 문화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옥화>(195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지촌의 집합주택에 사는 여주인공 쏬냐의 방은 입식 생활 구조이며 또한 미군부대 클럽의 댄스파티 장면에서는 맘보 등 서양식 공연을 과도한 길이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 악극과 같은 무대극의 공연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자 했던 일종의 배려였다[12].



Fig. 8. Interior Scenes of Sonya's Room and the Club <The Flower in Hell>(1958)

4. 결론

멜로드라마와 같은 대중영화는 당대의 주거문화, 건축 공간, 인간행위 등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13], 1950년대 말에 해당하는 신상옥 감독의 영상작품 5편을 분석하여 당시의 근대적, 서구적 건축공간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학과 건축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의 융합에 대한 시도로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14], 본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50년대 말 멜로드라마 영화들은 전후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전통적인 주거건축과는 대비되는 근대적 건축공간들을 조명하였는데, 이는 근대적/서구적인 주거방식과 부유층의 생활상에 대한 관객들의 동경과 호기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둘째, 주거공간뿐 아니라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 다양한 종류의 비주거 건축 공간 또한 멜로드라마 속에서 비중 있게 묘사되었는데, 이 또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한 결과였으며 주로 공간의 내부를 비추면서 서구적 이미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극 조명되었다.

주요 분석대상이 멜로드라마 5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짧은 기간(1958~59)에 해당하는 영화들만을 다루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약점이라 판단되나, 책이나 문서 등의 인쇄매체가 아닌 영상매체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영화학, 건축학 연구 영역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은 나름의 의의라 생각된다[15]. 더불어 50년대 건축물과 주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확보한 것 또한 미래의 연구를 위한 자그마한 성과라 생각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후반을 건축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H. Kim. (2006). *History of Korean Films*. Communication Books, Inc., 39.
- [2] KOFA. (2003). *Traces of Korean Cinema from 1945 to 1959*. Munhaksasangsa, 216.
- [3] J. Steven. (2007). *The Wrong House: The Architecture of Alfred Hitchcock*. 010 Publishers, 10.
- [4] J. H. Jeong. (2017). *Movie Paradise 2017 09+10 Vol.57*. Korean Film Archive, 51.

- [5] W. S. Park. (2014). *2014 Seoul Photo Festiva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9-14.
- [6] Y. H. Park. (2017). *Movie Paradise 2017 09+10 Vol.57*. Korean Film Archive, 22.
- [7] Y. H. Park. (2013). *Shin Sang-ok's Melodramas from the 1950s*. Korean Film Archive, 10-11.
- [8] <http://www.kmdb.or.kr>
- [9] Y. H. Park. (2013). *Shin Sang-ok's Melodramas from the 1950s*. Korean Film Archive, 14.
- [10] G. J. Moon. (2018). The Scenery of the Urban Residence Represented in Korean Films of the Liberation Perio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119-125. DOI : 10.15207/JKCS.2018.9.4.119
- [11] E. T. Jeong, K. H. Jung, H. J. Song. (2016).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Post-Modern aspects and storytelling from Imaging Content Produ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177-184. DOI : 10.15207/JKCS.2016.7.6.177
- [12] G. J. Moon. (2016). The Use of Urban-Architectural Element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of 1950s. *Design Convergence Study*, 15(4), 105.
- [13] G. J. Moon. (2017). The Scenery of the Modern City Represented in Korean Films of 1930-40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159-165. DOI : 10.15207/JKCS.2017.8.4.159
- [14] S. M. An. (2015). Study on the Convergence between Spatial Design Education and On-Offline Communication Metho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317-327. DOI : 10.14400/JDC.2015.13.5.317
- [15] G. J. Moon. (2017). The Convergence Study of the Cinematic Gaze Represented in Seojong MA-Resid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293-300. DOI : 10.15207/JKCS.2017.8.9.293

문 근 중(Moon, Guen-Jong)

[정회원]



- 2002년 11월 : 런던대학교 Master of Architecture 과정 (건축설계전공 석사)
-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영화, 도시, 풍경

· E-Mail : gjmoon@knu.ac.kr